

# 고문서로 본 호남인 삶, 마한문화 실체 규명

오늘 한국학호남진흥원·전남문화재연구소 학술대회  
“나철, 종교 관점 넘어 역사적 인물로 바라보고 사상 조명”  
한·중·일 연구자·교수 참여 마한문화 출현과 변천 과정 토론했다.

독립운동가이자 대중교를 중창한 보성 출신 나철(1863-1916)을 기존의 도인이거나 종교적 관점을 넘어 역사 속 인물로 바라보고 그의 사상을 학문적으로 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5일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과 한국중앙연구원 장서각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앞서 정옥재 한국학호남진흥원 연구원이 미리 배포한 논문에서 드러났다.

전라도 정명 1000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호남인의 사상적 토대를 살펴보고, 영산강유역의 마한 역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각각 광주와 나주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먼저 광산구 소촌동 광주시공무원교육원에서 ‘고문서를 통해 본 호남인의 사유와 경제생활’을 주제로 열리는 공동학술대회는 근대 전환기 호남인들의 삶과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엿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옥재 연구원은 이번 논문에서 “나철 친필본을 비롯해 나철이 남긴 언설들을 시대적 산물로 생각할 때 당시의 맥락과 상황에서 학문적으로 분석, 검토해야 한다”며 “그래야 박제된 성인(聖人)의 이미지가 아닌, 역사 속에 살아 있는 나철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고문서를 매개로 호남의 경제적 상황을 들여다보는 발표도 진행된다.

권수용 한국학호남진흥원 책임연구원은 ‘근대전환기 해남의 명례궁 공방전 수세과정-정우형 수신간찰을 중심으로’에서 왕가의 토지와 관련한 세금 납부 방식 등에 대해 발표한다. 해남의 향리인 정우형 가(家)에게서 나온 간찰을 토대로 당시 해남에 있던 왕가의 토지에 대한 수세 과정과 해남 및 섬주민의 생활상을 조명한다.

이어 허원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은 ‘한말-일제 초 영광 연안이씨가의 토지 거래와 소유권 확보’를 발표한다.

이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은 ‘한글편지에 나타난 해남윤씨가 8대 종부 광주이씨의 가문경영’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한다. 특히 이 연구원은 유교적 질서에 변화가 있던 19세기 격변기에 문중 종부로서의 지위를 가진 여성의 구체적인 삶의 여정을 한글편지를 통해 조명한다.

종합토론회는 조준희(국학인물연구소), 유지웅(전북대), 정수환(한국학중앙연구원), 손희하(전남대), 조미은(한국학호남진흥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062-603-9600.

한편 마한 문화의 실체를 규명하고 영산



마한시대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나주 복암리 고분.



나철 친필본-離世歌 마지막 면

강 유역 역사를 조명할 국제학술대회는 25일 오전 10시 나주 동신대(대정 3관 2층 투게더홀)에서 열린다.

전남문화재연구소가 개최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의 연구자, 중국과 일본

의 교수 등이 참여해 마한 문화의 출현과 변천 과정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부 ‘마한사회의 성립과 소멸’에서는 이정규 영남대 교수(‘유력 개인묘의 변천과 삼한 초기사회의 형성’)와 임영진 전남대 교수(‘영산강 유역 마한사회의 소멸 과정’)의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제2부 ‘영산강유역 마한 사회의 발전’에서는 ‘백제 건국 전후의 마한 사회’(윤용구 인천도시공사), ‘백제 건국 이후 마한 사회의 변천’(최영주 전남대)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중국 우웨이비잉 교수와 일본 시게후지 테루유키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학술대회 다음날인 26일에는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나주 복암리고분, 영암 내동리쌍무덤 등 영산강유역 마한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을 답사한다.

문의 061-287-680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문화읽기

대학수능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랜 시간 공부에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필자가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위안이 됐던 르네상스 음악을 추천하려고 글을 쓴다.



김선철 작곡가

필자의 대학 시절에는 곳곳에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 있었다. 서울 신촌에도 세 곳의 클래식음악 카페가 있었는데 특히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학교로 올라가는 길 오른쪽에 있던 ‘핑키’라는 카페가 떠오른다. 핑키는 비교적 비싼 카페였다. 라면이 300원 하던 시절, 이곳의 커피 값은 500원이었다. 그래도 자주 간 이유는 당시 구하기 힘들던 LP 원판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페에 가면 친구들끼리 같은 음악을 연주자별로 비교하며 감상한 후 지금의 오디오 프로그램처럼 등수를 매기곤 했다. 가장 기억나는 곡은 베토

벤지 질문을 던져보면 생소하다. 지루하다, 편안하다, 신비스럽다 등의 답이 돌아온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듣는 음악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 생소하게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르네상스 음악은 기본 음계가 다르고, 대부분 성악곡으로 한정된 음역대를 가지고 작곡됐다. 또한 다양한 리듬의 변화도 없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진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등수를 매기곤 했다. 가장 기억나는 곡은 베토

## 마음을 치유하는 ‘르네상스 음악’

벤의 ‘운명’ 교향곡이었다.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무라빈스키, 슈이트너, 카라얀, 크라이버, 칼 뵘 등 여러 지휘자가 지휘한 음악을 감상했다. 당시 ‘꼴찌에 등극한’ 지휘자 기억이 난다. 서울로 유학 와 학교에 적응하던 시기라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그 무렵 마음에 위안이 돼 준 것이 르네상스 음악이다.

당시엔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듣기 좋아 감상했는데, 요즘 대학에서 16세기 대위법을 가르치다보니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16세기 이전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사 전달이 중요했다. 복잡한 기교는 가사 전달에 방해가 되는 탓에 허락되지 않았다. 음악적 불협화음 또한 허용되지 않았다.

수업시간 르네상스시대 음악을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음악이 어떻게 들렸

라 하겠다. 온갖 조미료에 길들여진 현대인에게는 맛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 그대로의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대학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오랜 시간 공부에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르네상스 음악을 들려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업전이나 후 영어, 수학 자습을 시킬까 아니라 남은 시간이라도 학생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어떻게? 잠자기 전 영어 단어하나를 외우기보다 음악을 들으면서 잠들면 어떨까? 그러면 초등학년부터 대학입시를 목표로 공부해온 학생들에게 잠시나마 정신적 휴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요즘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르네상스 음악을 자주 듣는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어느덧 풀리고, 상처나 고통도 지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대중은 물론 전문가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르네상스 음악이지만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과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추천 음악은 팔레스트리나의 ‘교황 마르첼로를 위한 미사곡’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추억의 명화 음악으로 만나다

27일 ‘뮤직 인 시네마’

사동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재즈피아노 강윤숙



베이스 김성광

을 수 있는 무대도 마련된다. ‘난감하네’, ‘이몽룡야’ 등을 이기영의 판소리와 김단비의 해금, 이우빈의 파리·태평소, 신선민의 생황 연주로 듣는다.

마지막으로 조제프 코스마의 ‘낙엽’을 연주하며 무대를 마무리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10-7519-082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관현악반주에 맞춰 부르는 正歌

이성순 여창가곡 독창회

29일 풍암동 빛고을전수관



이성순(사진)의 정가(正歌) 독창회 ‘즐거는 정가랑 놀자’가 오는 29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풍암동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동국대 불교문화예술대학원에서 가곡을 전공한 이성순은 조순자, 김호성, 조창훈, 송순섭, 강송대에게 배우며 판소리 등 우리 전통성악을 이수했다. 현재 전통음악연구회 소리무늬 대표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광주에서 무대를 갖는 이성순은 이날 시조시를 관현악반주에 얹어 부른다. 45사 정도 되는 시조시를 느끼게는 10분 이상, 빠르게는 3분 여 연주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는

40여 년간 풍류모임으로 활동한 선악회가 함께 한다. 이 단체는 우리 전통음악 중 정악곡인 영산회상과 가곡 등 줄풍류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문의 062-350-455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CHANNEL A 미니시리즈

# 열두밤

사랑에 빠지기 충분한 시간

한승연 신현수  
연출 정현수 극본 황숙미

2018.10